

6·25전쟁이 중국군사에 미친 영향

趙學功*

1. 전략중심의 이동
2. 공군, 해군의 장대한 발전
3. 각 병종의 전면적인 발전
4. 중국군의 현대화 건설

1. 전략중심의 이동

1950년 6월 6·25전쟁의 발발은 중국지도자의 전략배치를 변화시켰다. 전체 해방전쟁의 승리가 바라다 보이는 시점, 대규모 작전임무가 완성됨에 따라 생산력을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할 경제적 임무가 바로 중국 지도자의 눈앞에 떠올라 최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1949년 12월초, 중공 중앙군사위원회는 1950년 군대의 생산건설 참여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인민해방군이 국방군이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신민주주의의 경제건설을 가속 화하고, 장기간의 전쟁이 남긴 곤란을 극복하도록 전국인민에게 협력하기

위해 경제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생산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해방군의 생산 참여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출발” 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경제건설의 필요에 따라 중공중앙은 군대를 정예군 위주로 크게 간소화하기로 결정하고, 병력을 54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감축해 군비지출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6·25전쟁은 중국 지도자의 臺灣해방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일찍이 1949년 3월, 新華社는 시평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인민(臺灣 인민 포함)은 미국 제국주의가 臺灣 혹은 그 어떤 여타 중국의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침범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국민당 반동파가 臺灣을 투쟁의 최후 근거지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민은 臺灣을 반드시 해방할 것이며, 반드시 전중국을 해방할 것이다.”¹⁾

6월, 毛澤東은 제3야전군 부사령관 粟裕와 중공 華東局에게 臺灣 탈취문제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즉 “臺灣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탈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탈취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臺灣의 적군을 분화시켜 그 일부를 우리측에 서게 해 우리와 내통시킬 수 있는지 연구에 착수하라. 그리고 대략적인 의견을 전보로 보고하라. 만약 우리가 오랫동안 臺灣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上海와 연안의 각 항구들이 아주 큰 위해를 받게 될 것이다.” 7월, 毛澤東은 또한 周恩來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는 반드시 臺灣을 공략할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9년 가을, 중앙군사위원회는 臺灣을 칠 전투계획을 세우고, 臺灣해방 작전 임무를 정했다. 주로 제3야전군에게 전달시키고, 여기에 해공군으로 하여금 전력으로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었다. 1950년 3월, 肖勁光 해군사령관은 粟裕와 臺灣전투준비 공작의 착수에 관해 협의하면서 50만 부대를 臺灣해협 도해작전에 투입하도록 하고, 이들을 2차에 걸쳐 수송하기로 하였다.²⁾ 5월 17일, 제3야전군은 ‘臺灣공격전의 승리를 보장하는 몇 가지 의견’

* 중국 南開大學 세계근현대사 연구센터 연구원.

1) 『中共中央文件選集』(北京：中央黨教出版社，1988年)，第14冊，599쪽.

을 하달하였고, 부대를 도해, 상륙작전 준비에 전용하기로 확정했다. 華東군구가 내린 훈련대강에 근거하면, 1950년 7월에서 1951년 3월까지 각군의 병중부대는 제각기 훈련하고, 1951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육해공 합동 상륙훈련을 실시한 후 3군 합동으로 臺灣을 해방하기로 하였다.³⁾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은 臺灣해방의 임무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만들었다. 중국 지도자가 보기에 한반도는 “이미 현재 세계투쟁의 초점이 되었고”, 적어도 “동방 투쟁의 초점”이었다. 만약 북한이 승리할 수 있다면, 臺灣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다. 중공중앙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을 결정했다. 즉 “북한인민을 지원하고, 臺灣해방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⁴⁾

6월말, 周恩來는 肖勁光에게 다음과 같은 중공중앙의 새로운 전략방침을 전달했다. “형세의 변화는 우리가 臺灣을 치는데 번거로움을 가중시켰다. 왜냐하면 미국이 臺灣에서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도는 미제의 臺灣침략과 중국 내정간섭을 비난, 질타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육군은 계속 감원시키되, 해공군 건설을 강화하고, 臺灣 공격 시기를 뒤로 미룰 생각이다.”⁵⁾ 7월 중순, 粟裕는 華東군구의 예하 부대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공중앙의 지시를 하달했다. “북한을 지원하고, 미제를 물리치기 위해 미국 해군이 臺灣해협을 침공,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중공중앙은 臺灣해방 임무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⁶⁾ 그 후, 중앙군사위원회는 또 다시 8월 11일 화동군구 사령관 陳毅에게 전보로 1951년에는 臺灣을 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1952년에 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6·25전쟁 발발 후, 毛澤東, 周恩來 등 중국 지도자들은 전황의 추이를

2) 『肖勁光回憶錄(續集)』(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年), 8쪽.

3)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61쪽.

4) 『周恩來軍事文選』(北京: 人民出版社, 1997年), 第4卷, 43~44쪽.

5) 『肖勁光回憶錄(續集)』(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年), 26쪽.

6) 『當代中國海軍』(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61쪽.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인식했다. 7월 6일, ‘인민일보’는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증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인민의 승리가 미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인민은 반드시 장기적이고 고난한 투쟁을 벌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설을 실었다.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질타함과 동시에, 발생 가능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지도자는 전략적 배치를 조정하기 시작하여 東北지역의 방어를 강화했다. 당시 동북지구는 1개 군단만이 있었다. 게다가 이 군단은 농업 개간 및 생산에 투입되어 있었고, 현지에서 업무를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다. 7월 7일과 10일, 周恩來는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여 동북변방 문제를 논의했다.

7월 13일, 중앙군사위원회는 정식으로 ‘동북변방 보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즉각 동북변방군을 조직하여 동북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할 경우 북한을 지원하기로 했다. 8월초, 미군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인민군의 공세가 침체에 빠졌다. 중국 지도자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북한인민군이 홀로 돌격하고, 후방은 넓고 약하며, 전황은 우여곡절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크며, 장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다. 8월 1일, 毛澤東은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즉 중국 인민해방전쟁은 이미 기본적으로 끝났으니 금후 인민해방군의 임무는 티벳, 臺灣을 반드시 해방하는 것 외에 주로 제국주의가 일으킬 수 있는 침략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여러 번 동북변방군에게 준비를 강화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는 6·25전쟁의 전황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한 뒤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전황의 역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국의 국가안전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중공중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과 동남의 2개 전략방향의 군사배치를 조정했다. 8월 26일, 周恩來는 국가안전을 지킬 제2차 국방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로 중국군을 출동시킬 가능성이 증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변방군에게 9월말 이전까지 모든 전투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만약 출국하여 전쟁에 참여한다면 주요 대상은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아니라고 언급했다.⁷⁾

중국지도자는 한반도 전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재차 동북지역에 8개 군단을 이동시켜 동북변방군을 12개 군단 규모로 증강시킬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聶榮臻의 건의에 근거하여 중앙군사위원회는 첫째, 中南지역의 제50군단을 동북으로 이동시켜 동북변방군의 전투서열에 포함시켰다. 둘째, 華東군구의 주력으로서 臺灣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제9병단의 3개 군단과 西北지역의 제19병단을 각기 津浦철로와 隴海철로 연선으로 배치시켰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투준비를 끝내라고 명령하였으며, 그들을 북한으로 들어가 참전할 전략기동부대로 삼았다. 중국지도자는 참전의 최후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군사력의 배치와 전략 중심은 이미 東南연해지역에서 東北지역으로 옮겨 갔다. 이와 동시에 전선의 물자공급을 보장하는 국가중공업, 특히 군사공업의 생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중국지도자는 東北지역의 중요 설비와 병공기업들을 이전시켰다.⁸⁾

9월 15일, 미군은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상륙한 뒤 신속하게 북으로 진격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金門, 臺灣 공격을 뒤로 미루라고 명령을 내렸다. 9월 29일 毛澤東은 중앙선전부에 향후 臺灣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되 구체적인 시간은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⁹⁾ 10월초, 중국지도자는 여러 차례의 반복된 토론과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한반도 출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으로 진입하여 작전에 들어갔다.

미군이 해군을 이용하거나 혹은 중국국민당 군대를 동원하여 연해지역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毛澤東은 또 다시 華東과 中南의 2개 군구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華東의 모든 공작은 미국과 蔣介石의 상륙을 상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라”, “공군은 북한으로 진입하여 작전할 준비를 하되 華東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廣東과 廣西 두 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괄적인 견지에서 이 두성을 제국주의와 蔣介石의 상륙에 대응할 통일적 단위로 삼는다.”¹⁰⁾ 6·25전쟁시기 중국은 4개 군단 병력을 각기 福建, 廣東에 배치했다.

2. 공군, 해군의 장대한 발전

6·25전쟁은 현대화 전쟁이었다. 한반도 전장에서 미국은 절대적 공중우세를 점했다. 작전에 투입된 미 공군기는 줄곧 1,000대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최고로 많을 때는 2,400대에 달했다. 조종사는 모두 비행시간이 1,000시간이 넘는 경력의 소유자였다. 공군은 신중국이 수립된 후에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그 역량은 대단히 취약했다.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 전야 공군 제4혼성여단(10월에 사단으로 변경)이 정식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공군으로서 정식 번호가 부여된 최초의 전투부대였는데, 각종 비행기 110여대뿐이었다. 중미 양국의 공중 전력은 현대하게 차이가 났다. 따라서 중국지도자가 미국과 전투를 벌이겠다고 결정하기란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상할 수 있다.

미군의 공중우세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점은 毛澤東과 지원군 지도자가 가장 먼저 고려한 일차적 문제였다. 毛澤東은 군사위원회의 공군 지도자에게 필히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일정 수준 작전능력을 가진 공군으로 훈련시켜 그들을 전장의 지원에 동원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지시했다. 6월

7) 雷英夫, 『抗美援朝戰爭幾個重大決策的回憶』, 『黨的文獻』, 1994年第1期, 25쪽.

8) 周均倫主編, 『聶榮臻年譜』(北京: 人民出版社, 1999年), 上卷, 530쪽.

9) 『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9年), 第1冊, 536쪽.

10) 『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9年), 第1冊, 666쪽.

28일,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즉 “우리는 몇 십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강대한 육군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는 해공군을 만들 조건이 생겨났으니 강대한 해군과 강대한 공군 만들기에 착수하여야 한다. 특히 국방에 극히 중요한 공군은 당장 만들어야 한다.”¹¹⁾

강대한 미군과 마주치게 된 중국은 당장 현대화된 자신의 공군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공군부대 창건의 발걸음을 빨리 했다. 1950년 8월,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근거하여 공군은 1950년에서 1953년간의 발전계획을 세웠다. 4년내에 2만 5,400명의 각종 항공기술요원들의 육성, 97개 항공병단의 편성, 107개 비행장의 건설과 함께 11개 항공기 수리공장을 세우고, 공군의 총 병력을 29만명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공군은 육군에서 얼마간의 사단과 연대급 지휘관을 차출하였고, 다시 공군이 제공한 기술 간부와 함께 공군 사단과 연대 지휘기관으로 편성했다.

한반도 전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참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공군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1950년 10월 9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彭德懷는 瀋陽으로 날아가 지원군의 군단급 이상의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간군단의 책임자들이 가장 염려한 것은 바로 국내를 벗어나 작전을 펼치는데 공군의 엄호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彭德懷는 毛澤東에게 급전을 보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즉 “우리 군이 출국하여 작전을 펼칠 시 군사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내 엄호해줄 수 있는가? 언제 출동할 수 있으며, 누가 지휘를 책임질 것인가?”¹²⁾ 사실상 이 역시 중국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한반도 출병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고려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周恩來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인정한 바 있다. “우리의 육군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군, 해군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년 봄

에 겨우 공군과 해군을 조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¹³⁾ 毛澤東이 한반도 군사개입을 결정한 뒤에도 지원군의 지도자인 鄧華, 洪學智 등은 10월 16일 연명으로 彭德懷에게 서한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2~3개월 내로 새로운 장비들이 보장되어야 만(특히 공군이 출동할 수 있어야)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출동시간을 연기하자는 의견은 대단히 고려할만한 것이다.”¹⁴⁾

소련 측은 원래 공군을 출동시켜 중국군의 한반도 내 작전을 엄호해주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결정적 시기에 스탈린은 소련의 참전이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세계대전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과, 동시에 중국군에 대해서도 전투수행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소련 공군은 잠시 출동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2개월 혹은 2개월 반이 지나야 준비가 완료되고, 그때에 가서도 겨우 압록강 북안의 중국 영내에 국한하여 방어만 해줄 수 있다고 했다. 11월에 가서야 스탈린은 3개 전투기 사단을 중국동북에 진주시켜 주로 북한의 북부와 중국동북지역의 안전에만 책임지기로 결정하였다.

공군의 무기 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소련의 차관을 이용하였으며, 국가재정 중 특별비로 소련 비행기를 구매했다. 1950년 11월에서 1951년 5월에 이르는 반년 남짓한 기간동안 중국공군은 17개 항공병사단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12개 전투기 사단, 2개 공격기 사단, 2개 폭격기 사단, 1개 수송기 사단이 있고, 당시 가장 선진적인 소련 미그15전투기를 갖추었다. 속도는 세계 공군 발전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랐다. 동시에 공군사령관 劉亞樓는 명령을 받들어 긴급히 지원군 공군을 편성하였으며, 中南군구 공군사령관 劉震이 지원군 공군사령관을 맡았다.

공군은 소련고문들의 도움 하에 돌격훈련을 개시하였으며, 소련으로부터 공중전과 공중전의 지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훈련장에서

11) 『當代中國空軍』(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9年)，36쪽.

12) 『彭德懷傳』(北京：當代中國出版社，1993年)，404쪽.

13) 『周恩來軍事文選』(北京：人民出版社，1997年)，第4卷，76쪽.

14) 杜平，『在志願軍總部』(北京：解放軍出版社，1989年)，40쪽.

전장에 이르는 거리를 단축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공군사령부는 “완보 전진, 계획완성, 질의 제고, 안전 확보”라는 훈련방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1950년 11월, 북한 북부의 교통 수송의 보장, 지상군에 대한 작전 지원, 공중전 경험 획득, 그리고 평양이북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공군사령부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지체 없이 전선으로 나가 전투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먼저 소분대로 실전을 익히기로 했다. 11월 4일, 劉亞樓는 瀋陽에서 공군 제4사단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적이 강하고 아군이 약한 상황에서 첫 번째 싸움의 승부는 목전의 전체 공군 작전과 향후 장기적인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초전에 신중하여야 하고, 실전을 통한 단련과 전투를 하면서 성장시킨다는 지도사상을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식으로 참전하기 전 먼저 소부대가 돌아가면서 실전연습을 익히도록 하고, 작은 싸움에서 시작하여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¹⁵⁾

토론을 여러 번 거듭한 끝에 공군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공군 참전의 지도사상을 확정했다. “지원군 지상군은 강하다. 한반도 전쟁에서 전투는 주로 육군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적을 섬멸하고 전투를 해결하는 것 또한 육군에 맡긴다. 따라서 공군이 행할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육군의 작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각군 병종의 합동작전 중 공군의 활동은 지상군의 전투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劉亞樓는 12월 3일 중앙군사위원회에 공군의 한반도 참전문제를 제기했다. 이때 그는 너무 이르게 공군부대들을 분산시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점차 훈련을 마친 공군을 축적하여 일정한 양이 될 때까지, 즉 최소한 100대에서 150대의 비행기가 출동할 수 있을 때에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여러 조로 나누어 출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전방의 지

15) 梁占方, 馬宏驍, 「劉亞樓與朝鮮空戰」, 『黨史天地』, 1996年第9期, 14쪽.

상군이 하나의 전역 혹은 전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을 직접 엄호하거나 협조함으로써 일정한 전투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공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이에 대해 다음날 毛澤東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 온당한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비준하였다.¹⁷⁾ 여기에서 “힘을 축적하고, 시기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작전 원칙이 정해졌으며, 지원군 공군의 작전승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2월 4일, 劉亞樓는 공군 제4사단에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그는 이번 참전은 중국공군이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미증유의 첫 번째 출격이니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휘하고, 절대로 임무를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매번 공중전에 나기 전에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케 하며, 모든 준비가 주도면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중전이 끝난 뒤에는 점검회의를 열어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점차 전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 공군 제4사단 조종사들은 미그 15기의 조종훈련을 막 마친 즈음이었는데, 조종사 한 사람당 평균 20시간 정도를 비행했다. 비행술은 아직 미숙달된 상태였다. 그러니 공중전 경험은 더 말할 게 못되었다.¹⁸⁾

1951년 1월 21일, 지원군공군은 압록강 부근 상공에서 최초로 미 공군과 교전을 벌였는데, 미군 전투기 1대를 격추시켰다. 이것은 공군이 초전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 단계는 공군 제4사단이 적은 수로 참전하였으며, 작전 중 소련군 비행기의 엄호를 받았다. 공격목표는 주로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전투기를 골랐다. 초전단계에서 지원군은 미군 전투기를 손상, 격추시킬 수 있었고, 부대의 전투에 대한 믿음을 증대시켰다.

1950년 하반기부터 지원군과 북한 측은 대량의 인력과 물자를 투입해 북

16) 『當代中國空軍』(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年), 129쪽; 鍾兆云, 「朝鮮空戰中的志願軍空軍」, 『百年潮』, 2000年 第10期, 16쪽.

17) 『空軍史』(北京:解放軍出版社, 1989年), 62쪽.

18) 齊德學, 「雛鷹雄風:中國人民志願軍空軍作戰史略」, 『軍事歷史』, 1995年 第1期, 14쪽.

한 북부지역에 비행장을 건설하려고 생각했다. 지상군과 합동작전을 벌일 목적으로 공군 몇 개 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미군의 폭격으로 이 구상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1년 6월 23일, 공군은 聶榮臻 총참모장 대리와 毛澤東에게 '공군부대 입북 참전 준비공작 계획과 절차'에 관해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공군은 7~8월내에 전쟁전 실시하였던 훈련준비를 계속하고, 동시에 전투기 부대 일부를 파견해 安東을 근거지로 북한으로 출격, 실전을 통해 단련시키기로 했다. 또 9월에는 전투비행사단 7개 반, 공격기 사단 2개, 폭격기 1개 반 사단을 합쳐 도합 11개 공군 사단(각종 비행기 약 600대)을 지원군이 벌이는 전역에 투입시키기로 했다. 9월에 북한의 비행장에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 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기할 것을 건의했다. 즉 현재 건설 중인 6개소의 제트식 비행장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도록 하고, 다시 평양이남 지역에 2개소의 제트식 비행장을 짓도록 한다. 또한 공군은 계속 북한경내의 비행장에 연료와 탄약을 수송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상기 보고 가운데 공군은 대규모 참전의 전망에 대해 비교적 충분한 검토와 예측을 한 뒤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는 적에 대한 급습을 성공시켜 상당한 효과를 거둠으로써 전체 전황에 유리하게 작용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잘못되어 커다란 손실을 입음으로써 도리어 전체 전황에 좋지 못한 영향을 입히는 것이다. 6월 24일 이에 대해 毛澤東은 동의를 표하면서 "이 계획에 따라 적절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9월에 실행할 작전에서 지극히 중요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¹⁹⁾

1951년 9월에서 1952년 6월까지 공군은 대량의 부대로 정식 참전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작전 방식은 주로 사단 단위였고, 대규모 공중전에 참가했다. 돌격훈련을 거쳐 1951년 9월에 이르자 9개 전투기 사단과 2개 폭격기 사단이 어느덧 일정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했다. 즉 지원군 공군은 사단 단위로 전투를 치르되 적

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오래된 것으로 새로운 것을 대신하고, 신구를 결합하여 먼저 약한 적을 치고, 나중에 강한 적을 치는 적절한 방법을 취한다. 또한 돌아가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윤번 작전 방침을 택하여 대규모로 전투에 투입시킨다는 것이다.²⁰⁾ 지원군 공군은 소련군과 상호 협조하여 그런대로 좋은 전적을 거두었으며, 작전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1951년 11월 21일, 미 공군 참모총장 반덴버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중국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일약 세계적인 주요 공군 강국의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²¹⁾ 1952년 7월부터 지원군 공군은 독립적으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것은 중국공군이 이미 일정한 전투력을 지닌 현대화된 군이 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毛澤東은 공군의 작전상황에 대해 비상하게 관심을 기울였고, 공군이 전투를 통해 부단히 강대해지기를 요구했다. 1952년 2월 1일, 그는 지원군 공군 제3사단이 1951년 10월 21일부터 1952년 2월 1일 사이 86일간의 전투 중 비행기 출격이 도합 2,391회, 미군기 55대 격추하고 8대를 손상시켰다는 작전보고를 받은 후 "공군 제3사단에 축하를 보낸다."는 치사를 써 보냈다. 그는 공군은 반드시 실전경험을 통하여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실전경험을 통한 단련이 공군부대에 미치는 의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지시했다. 또 설령 몇 차례 되지 않는 공중전이라도 치루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²²⁾

6·25전쟁 기간 중 지원군 공군은 싸우면서 건설하고, 싸우면서 훈련했다. 공중전을 치를 능력이 없었지만 배워서 공중전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소규모 공중전을 치루는 것에서 시작하여 대규모 공중전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리고 야간 및 복잡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중, 저공 작전

20) 王海, 『我的戰鬥生涯』(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年), 74쪽.

21) 『空軍史』, 86쪽.

22) 『當代中國空軍』(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年), 158쪽; 『抗美援朝戰爭史』, 第3卷(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155쪽.

19) 魏碧海, 『抗美援朝空戰的歷史問題: 王秉璋訪談錄』, 『軍事歷史』, 2000年 第6期, 32쪽.

술을 터득했다. 중국은 잇따라 공군 전투 항공병 10개 사단과 2개 폭격사단, 784명의 조종사와 5만 9,733명의 지상근무요원이 실전에 참가하였다.²³⁾ 지원군 공군의 전투를 보면 이륙 2,457회, 항공기 출동 대수 2만 6,491대, 이 가운데 실전으로 연결된 것은 편대 단위 366회, 총 4,872대였다. 또한 유엔기 격추 330대, 손상 95대, 교통수송선의 엄호, 중요목표의 보호, 지상군 작전에 대한 협력 등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놀랄만한 전과를 얻었으며, 지상군의 작전을 적극 지원했다. 한편 지원군 공군은 총체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던 관계로 커다란 대가를 치렀다. 비행기 231대가 격추되었고, 151대가 손상되었으며, 116명의 조종사가 사망하였다.²⁴⁾

지원군 사령관을 지낸 鄧華는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지상군 작전에 공군이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면 적을 대규모로 섬멸하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3년 이래 경험한 가장 깊은 체험이었다.”²⁵⁾ 돌격 훈련을 거쳐 1950년부터 1953년 가을까지 겨우 3년 동안 중국공군은 1개 항공병사단과 몇 십대의 항공기에서 출발하여 27개 항공병사단, 3,000여 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조종사, 기내 근무요원과 지상근무요원이 25만명이 되었으며, 수적으로나 규모와 실력 면에서나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 3위로 뛰어 올랐다. 중국공군의 발전은 세계 공군 창설사상 전대미문의 경우다. 바로 6·25전쟁이 이 같은 중국공군의 역사적인 변화를 촉진시켰다.

공군창설과 함께 해군창설 역시 중국 지도자의 의사일정에 올랐다. 1950년 1월 毛澤東은 蕭勁光을 초대 해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동년 4월 해군 지도부가 北京에서 발족되었다. 6·25전쟁 발발 후 중국해군은 창설 초기 단계에 있었다. 부대의 규모, 장비, 작전능력 면에서 모두 직접 참전할 형

23) 『當代中國空軍』(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年), 199쪽.

24) 徐焰, 『第一次較量: 抗美援朝真正的歷史回顧與反思』(北京: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0年), 205쪽; 『空軍史』, 84~85쪽.

25) 鄧華, 『論抗美援朝戰爭的作戰地導』(北京:軍事科學出版社, 1989年), 198쪽.

편이 못되었다. 전쟁 발발이 중국지도자로 하여금 해군건설의 발걸음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당시 해군의 주요 함정은 국민당 해군에서 起義, 투항, 포획한 것이거나, 혹은 그들이 버린 각종 구식 함정 183척, 각지에서 접수한 상선 및 어선 169척, 인양한 침몰 선박 6척, 홍콩에서 사들인 중고 선박 48척이 전부였다. 이러한 선박들은 대부분이 낡고 구식이 많았으며, 형태와 크기도 들쭉날쭉했다. 또 기계가 심하게 노화되어 한반도에 출동하여 작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무역을 금지하는 등 삼엄한 봉쇄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소련으로부터의 물자 구입을 제외하고, 기타 국가들로부터는 해군 무기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 중국 지도자가 해군에 내린 확정적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신속한 전력의 조직화, 長江에 연한 항로의 소통, 江蘇, 浙江 연해지역의 중국국민당 잔당들의 소탕, 전쟁준비의 강화, 언제든 미국이 확대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전투훈련과 부대건설을 강화하여, 臺灣 해방을 위한 각 방면의 준비공작 완비, 이와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등이었다.

8월 10일에서 30일 사이 해군은 北京에서 제1차 건군회의를 소집하여 해군 창군 임무를 확정했다. 그 내용은 장기적인 건설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형편에 맞게 현대화된 공격과 방어 능력이 있고, 근해의 가벼운 전투를 행할 수 있는 해상 전투력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현재 보유한 힘을 이용, 발휘하도록 조직하고, 현재의 역량에다 어뢰정, 잠수함과 해·공군 등과 같은 새로운 힘을 발전시켜 점차 하나의 강대한 국가해군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²⁶⁾

당시 해군이 만든 3개년 발전계획에 근거하면, 소련으로부터 구입하든, 아니면 국내에서 제조하든 전투함정 205척, 각종 항공기 420대를 준비하고, 또한 36개 해안포병 중대를 무장시킬 장비를 준비하기로 했다. 10월 8일,

26) 『當代中國海軍』, 41쪽.

毛澤東은 중앙정부 명의의 전보로 스탈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즉 “중국이 처해 있는 군사형세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긴장 상황에 대응하고 국방을 공고화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해군 3개년 건설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무기 장비를 원조해주기를 당신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12월 18일, 중국은 정식으로 소련정부에 1951년 내에 잠수함을 제공해주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소련측이 중국해군을 위해 4척의 잠수함 승조원들을 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⁷⁾

6·25전쟁 초기에서 중기 사이 중국해군의 해상함정, 잠수함 등 주요 병종의 건설은 기본적으로 “전무한 상태에서 보유하게 된” 단계에 있었다. 1949년 말 華東해군은 첫 번째 호위함 부대를 창설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당시 華東해군 제6함대로 확대했다. 1950년 9월 華東과 中南 등지에 3개 어뢰정 大隊을 편성했다. 10월, 해군 제1해안포 대대와 제1육전 연대가 연이어 편성되었다. 12월, 해군 제1고사포병 연대가 편성되었다. 1951년 1월, 해군 레이더부대의 전신인 해군 대공감시 대대가 靑島에 만들어졌다. 잠수함 승조원을 양성하기 위해 해군은 1951년 4월 275명의 잠수함 학습대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旅順항의 소련군 태평양함대 잠수함 분대에 가서 배웠다. 학습대는 5월 14일 정식으로 학습과 훈련을 개시했다.

소련군은 10명의 교관과 2척의 잠수함 승조원을 파견하여 학습대의 학습과 훈련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학습대는 1954년 6월에 수료했다. 1952년 4월 해군항공병이 편성되었다. 동년 6월 해군 항공병 제1사단이 만들어졌는데, 주로 上海와 동남연해지역의 방공작전 임무를 맡았다. 1952년 11월, 毛澤東은 반드시 공업건설의 발전 상황과 국가재정 상황에 맞춰 계획성 있게 하나의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라고 지시하였다.²⁸⁾ 1953년 2월 19일, 毛澤東은 함대 시찰시 “과거 제국주의의 중국침략은 대부분 해상에서 왔으며,

27) 王亞志, 『回顧與思考：1950年代中蘇軍事關係若干問題』, 『國際政治研究』, 2004년 第2期, 118쪽.

28) 『毛澤東軍事文集』, 第6卷(北京：軍事科學出版社, 中央文獻出版社, 1993年), 326쪽.

지금 태평양은 여전히 태평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국은 강대한 해군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⁹⁾

본래 중국지도자는 소련에서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해군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였었다. 이것은 소련으로부터 구입한 물자 총액 3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6·25전쟁의 전황변화에 따라, 특히 중국이 지상군 작전을 지원할 공군의 파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毛澤東은 지원군 공군을 증강시킬 요량으로 마침내 소련에 구입하기로 예약해놓은 해군장비를 공군장비로 바꿀 것을 고려했다. 1952년 2월 毛澤東은 공군사령관 劉亞樓를 대동하고 직접 해군지휘부에서 해군사령관 肖勁光과 이에 관해 논의했다.

해군건설이 부단히 진행됨에 따라 입북 참전할 조건도 날로 무르익어 갔다. 1953년 1월 5일, 蕭勁光 사령관은 毛澤東에게 구두 보고하는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해군의 입북 참전문제를 제기했다. 즉 지원군과 보조를 맞춰 미군의 서해안 상륙작전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해군은 1개 해안포병 연대와 1개 쾌속정 大隊(쾌속정 18척으로 편성) 및 기타 부대를 입북 참전시킬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毛澤東과 朱德 총사령관은 즉석에서 해군의 건의를 승인했다. 3월 해군지휘부는 36명의 지도원을 2개 조로 나누어 입북시켜 북한 서해안의 중요진지에 배치했다. 4월초, 華東해군은 입북, 참전시킬 17명을 선발하여 청천강 하구의 항로에 어뢰를 설치하도록 책무를 맡겼다. 4월 10일, 이들은 4척의 동력 범선을 타고 청천강 하구에 어뢰 190기를 설치하였고, 총 4개의 어뢰해역을 만들었다. 4월말 미군은 청천강 하구에서 상륙연습을 하였는데, 결국 상륙선 한척이 어뢰에 건드려 침몰되었다.³⁰⁾ 5월, 해군은 서해안에다 2개 관측 연락소와 1개 레이더 사이트를 설치했다.

29) 鄧禮峰編著, 『新中國軍事活動紀實 1949-1959』(北京：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9年), 299쪽.

30) 『抗美援朝戰爭史』(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年), 283쪽; 林有成, 『億赴朝鮮西海岸靑川江口布設水雷』, 『軍事歷史』, 2003年第5期, 66쪽; 林有成, 『人民海軍派員入朝秘密布雷行動』, 『縱橫』, 2000年 第10期, 27~28쪽.

다른 한편 1개 어뢰정 大隊과 1개 해상순찰 大隊가 임전준비를 완료하여 언제든지 지정한 해역으로 나가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³¹⁾

3. 각 병종의 전면적인 발전

현대전쟁은 각 병종의 합동작전이다. 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전투력이 있는 하나의 현대화된 군대는 그 구성이 필히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한다. 6·25전쟁 기간 공군과 해군을 제외하고 중국은 특별히 방공군, 포병, 철도병 부대 등의 발전에 속도를 냈다. 그리하여 군대의 구성이 더욱 전면적이며, 합리적이 되게 만들어 전쟁에서 절박한 필요성을 충족시켰다.

중국은 병력을 보내 북한을 지원하려고 결정하였고, 사용한 명의를 지원군이었지만 참전으로 전화가 중국에 미쳐 중국국내 상황이 최악이 될 경우까지 대비했다. 毛澤東은 1950년 10월 2일 스탈린에게 보내려고 기초한 전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중국군이 북한 내에서 미국과 전쟁을 치르려면 미국이 중국과 전쟁상태에 들어간다고 선언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적어도 미국이 공군을 이용해 중국의 많은 도시 및 공업기지를 폭격할 경우와 해군으로 연해지역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²⁾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렇게 결정했다. 즉 인민해방군 공군 제4혼성여단을 上海에 배치하여 방공임무를 맡게 한다. 또 국내의 주요 고사포 부대를 瀋陽, 鞍山, 本溪, 北京, 天津, 上海, 南京, 杭州 등 연해지역의 대도시와 중도시에 배치한다. 입북 참전 시 중국은 단지 16개 도시 방어용 고사포연대 뿐이었는데, 1953년에 가서야 5개 야전고사포, 약 70개 야전고사포 대대와 수십 개의 도시방어용 고사포 연대로 성장했다.

31)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史』(北京:軍事科學出版社, 1988年), 262쪽.

32) 『毛澤東軍事文集』(北京:軍事科學出版社, 中央文獻出版社, 1993年), 第6卷, 107쪽.

중국은 맹렬하게 전투항공병 부대를 확충하여 廣州, 青島, 北京과 天津 등의 도시에 배치하여 방공작전 임무를 맡겼다. 동시에 국내 방공체계 건설에 속도를 가했다. 東北지역의 방공을 강화하기 위해 1950년 8월 7일, 東北군구 방공사령부를 설립했다. 9월 8일, 瀋陽과 安東(오늘날 丹東)을 중심으로 2개의 방공구역을 설정했다. 12월 중앙군사위원회는 東北에서 上海, 廣州에 이르는 선의 연해지역의 방공부대, 고사포와 탐조등 부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할 해방군 방공사령부의 창설을 승인했다. 1950년에서 1952년 사이 인민해방군의 華東, 華北, 東北, 中南군구 방공사령부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1951년에서 1953년 사이 중국공군은 작전용 항공기 539개 편대, 총 3,419대를 출격시켜 華東 연해지역에서 정찰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던 미군기를 몰아내거나 격퇴했다.

방공고사포 부대는 거의 모두 육군에서 차출되어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무기 운용의 숙련도 면에서 모두 일정한 거리가 존재했다. 각 포병부대의 방공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1952년 4월부터 방공군 각 고사포부대는 돌아가면서 한반도 전장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실전을 통해 작전 운용기량을 높이면서 작전경험을 쌓았다. 동시에 고사포부대의 간부와 장교들을 북한에 파견하여 실습을 참관하도록 했다. 2년에 걸쳐 東北과 연해지역에 중점적으로 전국 방공체계를 수립하여 중국내륙지역과 전략적 후방지역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6·25전쟁 기간 동안 지원군은 개인화가 위주에서 대포 위주로 바꿈으로써 현대화전쟁의 초급 단계로 들어갔다. 중앙군사위원회는 포병건설을 육군 현대화의 중점으로 삼았으며, 대규모 포병부대를 창설했다. 지상군 포병과 고사포병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강해졌다. 1950년 3월 포병사령부가 창설되었으며, 陳錫聯이 사령관이었다. 창설 초기 포병사단은 7개뿐이었으며, 1953년에 가서야 17개 사단으로 발전했다. 동시에 소련으로부터도 수 천문의 각종 화포를 들여왔고, 장비도 크게 개선되었다. 국내는 또한 7개소의 포병학교와 1개 포병간부 양성기지, 3개 포병 기계학교를 설립했다.

1951년 4월 毛澤東은 해방군 포병학교를 위한 題字에 “강대한 인민포병의 건설과 분투를 위하여”라고 써주었다.

전쟁 전 기간 12개 지상군 포병사단과 25개 군단의 부속포병이 입북 참전했다. 지원군 포병은 수량이나 질에서 미군보다 못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대규모 포병전을 전개할 정도가 되었다. 1952년 12월 16일,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서 중국 지도자는 지원군 포병이 작전 중에 드러난 작용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즉 “금년 추계작전에서 우리는 이 같은 승리를 거두었다. 장병들이 용감하였고, 공사가 견고하였으며, 지휘가 적절하였고, 물자가 제대로 제공되었던 것 말고도, 포화의 맹렬함과 사격의 정확성은 승리로 이끈 요소였다.”³³⁾

무기, 탄약 등 전투물자의 생산, 제공 면에서 중공중앙은 周恩來를 주임으로 聶榮臻, 李富春을 부주임으로 한 병공위원회를 설립하여 병기공업의 건설과 생산을 촉진시켰다. 이로써 전선에 보낼 무기, 탄약의 제공을 보장했다. 毛澤東은 항미원조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국방공업의 건설과 군수공업의 생산은 해나가야 하고, 현대 무기, 장비를 연구 제조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³⁴⁾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보내 참전한 약 3년 간, 병기공업의 성과를 보면 각종 총기 60여만 정, 총탄 15억 발, 각종 화포 9만여 문, 로켓포 7,000여 문, 포탄 1,400여 발, 수류탄 2,300여 발 및 대량의 작약 등을 생산했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국외(주로 소련)에서 인민폐 31억 위안 상당의 무기, 장비를 구입했다. 이 모든 것이 중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튼실한 기초를 마련했다.

후방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문제는 전선의 승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전선의 무기, 탄약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군은 부단히 후방지원 건설을 강화했다. 지원군은 국외에서 작전하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강적과 겨루었기 때문에 부대의 후방지원 제공문제는 더욱 절실하였을 것

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소모된 전쟁물자의 방대함과 조직 존속의 어려움은 모두 중국군이 예전에 맞닥뜨리지 못하였던 문제들이었다. 지원군은 반드시 과거 “소형 미그 보병총과 보급창고는 전방에 있다”는 작전개념을 철저하게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³⁵⁾

후방지원 공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1951년 1월 東北군구 제1차 후방지원공작회의에서 총결된 바와 같다. 즉 임무면에서 과거 단순한 조직 공급에서 조직이 드러나지 않고 공급하는 식으로 변했다. 또 적의 봉쇄 파괴 투쟁과도 싸워야 했다. 대상의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단일병종에 대한 보장에서 다병종에 대한 보장으로 발전했다. 물자 획득면에서는 과거 현지 조달과 적으로부터의 탈취 위주에서 국가가 통일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후방지원 계통의 편제면에서 과거 단순 업무부문과 분대 근무에서 여러 분대가 합쳐 근무하는 대규모 부대로 발전했다.

회의는 이러한 발전이 국부적이 아닌 전체적인 것이며, 일시적이 아닌 역사발전의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후방지원 공작이 6·25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송문제 역시 후방지원 공급을 보장하는 관건적인 것이라고 인식했다. 周恩來는 이 회의에서 후방지원부문과 관련하여 “공격을 받아도 허물어지지 않고, 폭격을 받아도 부러지지 않는” 강철 수송선을 건설하여 전선의 물자공급을 보장하라고 지시하였다.³⁶⁾ 6·25전쟁 기간 후방지원부문을 보면, 전선으로 수송한 무기, 탄약은 총 260만톤이었으며, 자동차 2만 대, 부상자 치료 38만명, 병원 근무요원 45만명을 보냈다. 6·25전쟁을 통해 중국군의 후방지원공작은 현대전을 지향한 역사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6·25전쟁의 실천은 지원군 지휘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깊이 인식케 했다. “전쟁은 인력, 물력의 시험이다. 특히 고도의 기술 장비를 지닌 미군

33) 『周恩來軍事文選』(北京：人民出版社，1997年)，第4卷，310쪽.

34) 『當代中國的國防工業』(北京：當代中國出版社，1992年)，上卷，11쪽.

35) 『聶榮臻傳』(北京：當代中國出版社，1995年)，508쪽.

36) 徐焰，『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北京：解放軍出版社，2003年) 375쪽；張明遠，『風雲戰勤：憶抗美援朝戰爭的後勤保障』，『當代中國史研究』，2000年 第6期，33쪽.

과 작전을 벌일 때는 더욱 그렇다. 만약 최저한도의 물자공급도 없이 적을 이기려 든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³⁷⁾ 彭德懷는 경험을 총결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대전쟁은 만약 후방의 충분한 물자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 반면 후방에 충분한 물자가 있지만 만약 강력한 후방지원조직과 지원업무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아 제1선에 공급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총참모장 대리직에 있던 聶榮臻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다. “아군의 후방지원은 시종 적 공군의 봉쇄와 파괴 속에 진행되었다. 공작은 극히 곤란하고, 장비, 물자손실 역시 막대하였다.” 이 교훈을 받아들여 평시에 군의 현대화 건설과 작전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가 재력과 물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방지원건설을 강화하고, 작전에 필요한 무기를 비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단 유사시 후방지원이 선진적 작용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깊이 느끼는 바가 있는 듯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엄격하게 말하여 우리는 항미원조전쟁을 통해 비로소 후방지원공작이 현대 전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금후 우리는 건군해나가면서 6·25전쟁 중 지원군후방지원공작이 거둔 다방면의 귀중한 경험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³⁸⁾

1953년 1월 毛澤東은 후방지원 학원에 훈사를 보내면서 한발 더 나아가 후방지원 업무가 군 현대화와 정규화 건설에 미치는 중요한 작용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 즉 조직이 잘되어 있는 후방지원업무는 현대의 군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또 후방지원업무를 경시하여 후방지원업무가 중요한 전문적 과학이 아니고, 계통적으로 배울 필요도 없으며, 업무에 정통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식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 군대에게 소련군이 건설한 완벽한 후방지

원업무에 대해 배우도록 지시했다. 또한 6·25전쟁 중 후방지원업무의 상황과 경험을 연구하여 “아군의 후방지원업무의 현대화와 정규화 목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⁹⁾ 이렇듯 6·25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후방지원의 보장은 중국군 현대화의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6·25전쟁을 통해 중국군의 각종 병종은 모두 전대미문의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공군, 해군 및 장갑병, 공병, 통신병, 화생방 방어병(防化兵) 등 특종병 부대의 건설 속도가 빨라졌다. 제 군병종이 상호 협력하는 합성부대를 만들어내게 됨으로써 일차적으로 현대적 조건하에서 각 군병종간의 합동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군은 구식에서 벗어나야 할 역사적 변화를 실현시켰다.

4. 중국군의 현대화 건설

1949년 9월 신 중국 수립 후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의 국방은 장차 공고화하여야 한다. 우리 국토를 또 다시 침략해오는 그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민의 무장역량을 반드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장차 강대한 육군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강대한 공군과 강대한 해군도 있어야 한다.”⁴⁰⁾

제1차 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된 ‘공동강령’은 신 중국이 현대화된 육군을 강화하고, 공군과 해군을 건설해 국방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군의 정규화, 현대화 건설은 신 중국의 지도자 앞에 놓인 하나의 커다란 임무였다. 1949년 10월 중순, 毛澤東은 국방건설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중앙군사위원회 아래에 국방연구 소조를 두기로 결정했다.

37)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0年), 181쪽.

38) 洪學智, 『抗美援朝戰爭中的後勤工作』, 『軍事歷史』, 1987年第1期, 4쪽; 『聶榮臻回憶錄』(北京: 解放軍出版社, 1984年), 745, 747~748, 759쪽.

39)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339쪽.

40) 『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9年), 第1冊, 7~8쪽.

6·25전쟁이 발발하고 전황이 부단히 확대됨에 따라 군 현대화의 조속한 실현은 중국이 당장 이루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毛澤東은 1950년 9월말 제1차 회의에서 “중국은 반드시 강대한 국방군을 건립하여야 하고, 반드시 강대한 경제적 힘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커다란 대사”라고 명확히 강조하였다.⁴¹⁾

6·25전쟁은 중국군의 현대화를 향한 변화의 발걸음을 대단히 크게 빠르게 만들었으며, 중국군을 위해 풍부한 현대전 경험을 가진 군사적 간성들을 많이 길러내었다. 1951년 2월, 毛澤東은 6·25전쟁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개할 ‘윤번작전’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로 들어가 윤번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총 290만명이었다. 여기에는 탱크병 2개 사단, 고사포병 6개 사단, 공병 15개 연대, 철도병 10개 사단이 포함되었다.

毛澤東은 1952년 8월 4일 전국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과거 20여 년간 전쟁을 치렀으나 공군이 있어 본 적이 없다. 남이 우리를 폭격하는 일만 있었다. 현재 공군도 있게 되었다. 고사포, 대포, 탱크도 있게 되었다. 항미원조는 하나의 대학교다. 우리는 그곳에서 대연습을 실행한다. 이 연습은 군사학교를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 만약 내년엔 다시 1년 더 전쟁을 치른다면 전체 육군이 모두 한번씩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게 된다.⁴²⁾ 전쟁이 끝난 후 毛澤東은 항미원조 전쟁의 의의를 거론하였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중국인민 지원군의 육군, 공군, 해군, 보병, 포병, 공병, 탱크병, 철도병, 방공병, 통신병, 그리고 위생부대, 후방지원부대 등은 미국침략군에 대한 실제 작전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미국군대의 밑바닥을 만져보았다”, “우리는 그들과 33개월을 싸워 그들의 밑바닥을 잘 알 수 있을 만큼 만져 보았다.”⁴³⁾

41)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103쪽.

42)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316쪽.

43)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355쪽.

전쟁의 발발은 군비 보장을 충분하게 만들었다. 신 중국수립 후 경제건설을 제1의 과제에 놓았다. 군대 지출은 대폭으로 감소되었다.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지도자는 “모든 것은 전쟁에 복종하고, 모든 것을 전쟁수요에 맞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들은 이렇게 인식했다. 즉 만약 국가재정 예산 가운데 국방지출을 제1순위에 놓지 않는다면, 미국의 침략 기세를 쳐부수지 않는다면, 모든 경제건설은 보장받지 못하고 단지 전쟁 종결 이후가 되어야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1950년 군비지출은 국가 총 지출의 41.5%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1951년에 이르러 42.5%로 상승했다. 1952년과 1953년의 국방비 역시 각기 30% 이상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상황하에 중국의 경제건설은 분명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6·25전쟁 중 싸우면서 배웠고, 건설했다. 중국군은 기술 장비면에서 미국과의 차이가 일정정도로 좁혀졌다. 현대전을 수행하는 군대의 능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이에 대해 周恩來는 이렇게 표현했다. “장비, 무기와 화력면에서 우리는 미 제국주의보다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적으로부터 적지 않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이제 단련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지 깨우치게 되었다.” 그는 중국군에게 6·25전쟁은 하나의 아주 훌륭한 학습기회였다고 생각하였다.⁴⁴⁾ 6·25전쟁 중 미국은 원자탄 이외의 모든 현대화된 무기를 동원했다. 그래서 중국군은 현대화 전쟁의 시험을 받게 된 것이다. 전쟁의 세례를 통해 중국군의 정신과 심리적 태도, 전투능력, 후방지원 보장 등 각 방면에서 모두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6·25전쟁의 실천은 중국지도자의 군에 대한 정규화, 현대화 건설에 대한 중요성과 절박성을 크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 전쟁 경험은 현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고도로 현대화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이 군대는 선진적 현대 무기, 장비가 필요할 뿐

44) 『周恩來軍事文選』(北京：人民出版社, 1997年), 第4卷, 297쪽.

만 아니라 현대전의 조직, 제도에 적응하고, 현대 군사기술을 숙지하고 있는 지휘관도 필요하다. 1951년 1월, 중앙군사위원회는 정규화, 현대화된 국방군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4월,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 '8·1잡지'를 창간했다. 朱德 총사령관은 발간사에서 이 잡지를 창간하는 목적이 강대한 정규화, 현대화된 국방군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렇게 지적했다. 즉 이 강대한 정규화, 현대화된 국방군은 반드시 합동 병종작전의 지휘 및 병종학술에 밝고 (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강한 후방지원공작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고도의 조직성, 기율성, 계획성과 정확성을 지녀야 한다. 또 정규적 생활 질서와 상당히 높은 문화적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⁵⁾

9월 24일, 朱德은 각 병종 사령관, 참모장 및 각 군구 참모장, 군사훈련 처장, 집체회의에서 1952년 훈련계획의 주요 목적은 군대를 현대화, 정규화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화, 정규화 훈련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진행한 전쟁으로 인해 각 방면이 모두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만약 현대화, 정규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현대화된 장비가 있더라도 진정한 현대화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⁶⁾ 군대의 정규화 건설은 특히 훈련의 정규화를 말한다. 모든 군 병종 사이의 합동작전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이미 현대전의 관건적 요소가 되었다.

彭德懷는 지원군 사령관으로서 현대전과 현대화된 군대에 대해 매우 깊은 체험을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6·25전쟁은 군 현대화의 요구가 결코 단순히 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부대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현대전은 군대가 고도의 정치적 식견, 맹렬한 전투의지, 우수한 기술 장비, 노련한 지휘능력, 견고하고 민첩한 지휘기구, 충분한 물자공급, 기술숙련 병사의 대량 충원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나아가 반드시 군대의 정규훈련을 강화하여야 하고, 일정 수준

45) 『朱德軍事文選』(北京：解放軍出版社, 1996年), 778~779쪽.

46) 『朱德選集』(北京：人民出版社, 1983年), 302쪽.

의 문화적 소양, 과학, 기술을 가지고 군사업무에 정통한 간부와 일정 수량의 기술병을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길러내야 한다.⁴⁷⁾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대화된 군대란 결코 단순히 보병에 비행기, 탱크, 대포를 더하면 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단일의 병종에서 제 병종간의 합동으로, 낙후된 장비에서 근대 장비로, 분산된 작전에서 집중된 현대적 작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커다란 약진이며,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간단한 양의 증가가 아니므로 일련의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현대화된 군대를 건설하려면 먼저 필히 현대적 군사업무, 그 기술과 과학지식을 익혀 이에 정통하여야 한다.

彭德懷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했다. "현대화된 전쟁은 과거의 전쟁에 비하여 병사, 병종, 장비, 기술이 모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이 같은 아주 복잡한 현대전의 조직과 고도의 기술동작은 평시 같고 닦지 않고 숙달시켜 놓지 않으면 전시에는 완전히 무능하고 무력해지는 것이다." "현대 전쟁 가운데 그 어떤 병종도 전략, 전투임무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어떤 병종도 한 병종으로는 다른 병종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에게 병종간의 협동 작전을 하게 만드는 이유인데,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⁴⁸⁾

1950년 11월 5일에서 19일, 총참모장은 군사학교와 부대훈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인민해방군이 저급 단계에서 고급 건군단계로 나아가는 주요 특징은 정규화, 현대화라고 지적했다. 이 회의는 군사훈련의 기본적 내용과 방침을 제시했다. 즉 신속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부대로 하여금 현대 병기 및 기타 군사기술을 익히게 하며, 지휘관은 조직과 각종 병종의 연합작전과 협동행위에 대한 지휘를 배우도록 만드는 것이다. 참모와 통신업무를 이해함으로써 부대의 정규화와 현대화 건설에 속도를 내게

47) 『彭德懷軍事文選』(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88年), 479쪽.

48) 『彭德懷軍事文選』(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88年), 512, 530쪽.

만드는 것이다.

회의에 이어 전군은 기술습득을 위주로 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1951년 여름, 중앙군사위원회는 安徽의 蚌埠에서 공군, 공수병과가 참여한 육군사단의 도하작전 연습을 실시했다. 1953년 6월부터 “정규훈련을 실시하여 조속히 인민해방군의 현대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라.”는 毛澤東의 지시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군에 군사훈련 위주의 정규훈련을 개시케 하였으며, 나아가 부대의 전술과 기술 수준을 높여 “아군을 하나의 우량한 현대화된 혁명군대로 건설하도록 했다.”⁴⁹⁾

6·25전쟁 기간동안 중국은 육군을 토대로 일정 규모를 지닌 공군, 해군과 특종병부대를 만들었다. 무기장비도 통일화, 표준화를 이루었다. 동시에 100여 개의 군사 전문학교 및 대학을 정비하거나 새로 건립하여 비교적 완벽한 군사 전문학교 및 대학 교육체제를 확립했다. 현대전에 적응할 지휘관과 각종 전문 영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공군항공학교를 예를 들면, 1950년에서 1953년 말까지 도합 12개 항공학교를 세워 조종사 5,945명, 비행근무원 2만 4,000명, 군사간부 396명, 정치간부 690명, 후방지원병과 간부 310명을 길러내었는데, 항공병을 끊임없이 증강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이 구비되었다.⁵⁰⁾

중국지도자는 군 간부의 배양을 십분 중시했다. 毛澤東은 친히 1951년 1월 설립된 군사학원, 1952년 7월 설립된 총고급 보병학교와 1953년 9월 설립된 군사공정학원 등 4개의 군사교육기관에 각기 써준 훈사에서 비교적 계통적으로 중국의 현대화, 정규화건설의 필요성과 기본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총고급 보병학교의 훈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조국을 보위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과거 비교적 낙후된 국내의 적이 사용한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부족하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장비와 이에 따른 최신의 전술을 익혀 그에 대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군사공정학원에 써준 훈사에서는 한층 더 강조했다. 즉 “국방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군, 공군과 해군은 모두 기계화된 장비와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떨어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기술을 장악하고 부릴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끊임없이 개선하고 진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⁵¹⁾

1952년 7월 10일, 毛澤東은 군사학원에 보내준 훈사 중 중국의 군대건설이 이미 새로운 고급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말하자면 현대 기술을 장악한 단계에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객관적인 물질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군사건설은 여전히 비교적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즉 장비가 단순 저열하고, 편제와 제도가 비정규적이었으며, 엄격한 군사기율의 결여, 집중적이지 못한 작전지휘, 통일적이지 못한 유격적 성격 등등은 과거에는 필연적으로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옳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신중국 수립 후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은 이미 기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현대 장비에 적응하는 것은 바로 부대 건설의 정규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통일적 지휘, 통일적 제도, 통일적 편제, 통일적 기율, 통일적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병종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한때 옳았던 바 있지만 현재는 맞지 않은 그러한 집중적이지 않고,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엄격하지 않은 기율, 간단한 현상과 유격습관 등등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전체 공작이라는 측면에서, 지휘면에서, 그렇지만 무엇보다 먼저 교육 훈련면에서 배양한 그러한 조직성, 계획성과 기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규화, 현대화된 국방부대에게 필수불가결한 중요 조건 가운데 하나다.

毛澤東은 특별히 사령부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복잡하고, 고도로 기계화된 전역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건전하지도 않고 두뇌작용이

49) 鄧禮峰編著, 『新中國軍事活動紀實1949-1959』(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9年), 299쪽.

50) 『當代中國空軍』, 69쪽.

51)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337, 351쪽.

있는 것도 아니며, 과학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것과 사령부 기구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제부터 필히 우수하고 조직과 지휘 재능이 많은 지휘관을 선발하여 각급 사령부에 보내야 한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정규화, 현대화된 국방부대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군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노력을 통해 “정규화, 현대화된 국방부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신을 모든 부대들에서도 관철하기를 바랐다.”⁵²⁾

군사전문학교와 군사대학을 개편하거나 창설함과 동시에 군의 정규화와 현대화 건설 요구에 부응하고, 부대의 문화적 소양을 광범하게 제고하기 위해 1951년 말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군 차원에서 대규모로 문화교육 위주의 훈련을 실시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전군에서 학습에 참가한 수는 150만명이었다. 교육훈련을 통해 군대의 문화 수준은 널리 각기 다른 정도로 제고되었다. 그리고 문맹과 반문맹율도 1951년의 67.4%에서 1953년 5월의 30.2%로 떨어졌는데, 군대의 정규화,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좋은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중국군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현대화를 향한 변화를 만들어낸 까닭은 크게는 소련의 원조와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련이 제공한 좋은 조건의 차관을 이용, 소련으로부터 대량의 선진 장비를 사들여 군대건설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60개 보병사단과 12개 공군사단의 장비가 있었고, 해군 36척의 어뢰쾌속정도 포함된다. 1951년 소련은 무상으로 중국에 선진적인 성능을 가진 372대의 미그15기를 제공하였다.⁵³⁾ 소련으로부터 대량으로 들여옴과 동시에 중국은 점차 계획에 따라 제도를 모방하고, 소련무기를 개선하였으며, 규모가 큰 79개의 군수공장을 신축하거나 확장하였다.

1951년 6월, 중앙병공위원회는 ‘병공건설에 관한 결정’을 만들었으며, 3년 안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육군의 무기, 탄약 및 해공군의 탄약을

52)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314~315쪽.

53) 王亞志, 『新中國成立初期蘇聯與中國的軍隊裝備』, 『俄羅斯研究』, 2004年 第1期, 30~43쪽.

생산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도록 지시했다. 50년대 중기부터 중국은 자체적으로 무기 장비를 연구, 제조, 개발하기 시작했다. 중국지도자는 현대화된 장비는 외국 주문 구입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자신의 공업, 특히 중공업을 건설,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1952년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군 1952년 간소화, 개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방군을 신편제와 신장비에 맞게 개편함에 있어 무기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해서는 안 되며, 절약한 자금을 중국 군수공업이 발전하도록 하는데 사용하여 스스로 무기를 제작해야 할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3~5년 내에 비행기와 탱크를 자체 생산할 수 있으려면 장비개선은 주로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에서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1956년 이후 소량의 비행기, 함정과 기타 개별 장비의 복제품을 제외하고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구입을 중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이른바 현대화, 정규화란 실제로는 소련에게 배우고자 한 노선이었다. 1952년 12월, 전군 참모장과 정치주임 연석회의에서 한층 더 분명하게 소련에게 배우는 것을 국방군의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지도 사상으로 삼았다. 소련 측 역시 중국에 대량의 군사전문가들과 고문들을 주재시켰으며, 중국군의 현대화, 정규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1953년 초, 毛澤東은 여러 번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소련의 군사과학을 배워 조속히 우리 군을 현대화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아야 한다.” “반드시 소련의 모든 선진경험을 배워 손에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군의 낙후한 상태를 개선하고, 우리 군을 세계 제2위의 최고로 우수한 현대화된 군대로 건설하여야 한다.” “소련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 건군사상 좋은 전통이다.” 반드시 소련의 선진과학 기술을 배우고, 소련군사 공정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배워야 한다.⁵⁴⁾

6·25전쟁이 끝난 뒤 중국지도자는 경제건설에 정력을 쏟음과 동시에 군

54)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337, 351쪽.

현대화를 변함없이 중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1953년 12월 7일에서 1954년 1월 26일까지 중공 중앙군사위원회는 北京에서 군 계통의 당 고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참가자는 군사위원회, 각 총부, 각 대군구, 각 군병종, 각 군사교육기관의 주요 지휘 간부 123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국방 및 군대건설과 관련된 약간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彭德懷는 이 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군사건설은 이미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단계적으로 우리 군을 강대한 현대적 혁명군대로 건설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 놓인 가장 근본적인 임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회의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했다. 즉 “세계적으로 우수한 현대적인 혁명군대를 건설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키고, 제국주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을 군사건설의 총방침과 총임무로 삼는다고 했다. 또한 공군건설을 강화하고, 육군은 포병건설을 중점으로 하고, 해군은 잠수함, 쾌속정을 중점적으로 발달시켜 돌격능력이 강하고, 입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현대전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투능력을 보유케 하기로 결정했다.⁵⁵⁾ 이것은 중국군이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을 가리킨다.

(원고투고일 : 2007. 9. 5, 심사완료일 : 2007. 11. 16)

주제어 : 6·25전쟁, 군현대화, 중국군

<ABSTRACT>

The Korean War's Impact on Chinese Military

Zhao, Xue-gong

The Korean war was the first direct military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Chinese military greatly and widely.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indeed achieved a great deal in the war, forcing the United States to give up the plan of uniting the Korean Peninsula by force and solving the problem through political means. However, China also paid much for the war, and many problems appeared, especially the Chinese army's weaponry was far behind the United States. Using the Chinese leaders' manuscript and memoirs, biography and diary which are open to the scholars in China, this paper mainly discusses the influence of the war on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Part one of the paper analyzes the shift of the Chinese strategic emphasi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Chinese leaders mainly want to liberate Taiwan, ending the Chinese Civil War. They had made the preparation to attack Taiwan in 1951. With the outbreak of the war in June 1950, and the United States navy patrolled in the Taiwan Straits, made the Chinese leaders' plan impossible. Especially after the landing of US armies in *Incheon*, the Chinese leaders began to prepare to send troops to Korea, sav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plan of liberating Taiwan was postponed indefinitely.

Part two reveals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Air Force and Navy respectively. In the early days of New China, China had only about couples

55) 王焰主編, 『彭德懷傳』(北京:人民出版社, 1998年), 581쪽; 『彭德懷軍事文選』, 475쪽.

of planes, the force was very weak. After the entering into the Korean War, the Chinese began to increase the air force swiftly and greatly. In early December, the Chinese Air Force began to join the war with the Soviet Union Air Force. At the same time, China also developed the Navy and the Chinese Navy participated in the war in early 1953.

Part three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other kinds of army, including the artillery, anti-artillery, and the logistic transportation. And, Part four explores how the war promoted the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Army. The painful experience in Korea made the Chinese understand that it was impossible to win a modern war without a modernizing army. The Korean War led the change of the Chinese leaders' viewpoint of the modern war,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modern army.

Key Words : The Korean War, Military Modernization, Chinese Army